
충남연구원, 중국 교육 연구기관들과 연구 교류 및 협약을 위해 방문

2015. 12

■ 중국출장 전체 일정

10월 20일(화)

10:00 김포공항 국제 출발층 동방항공 수속대앞 집합
12:00 김포 이륙-12:45 상해 홍차오(虹橋)공항 도착(MU512)
16:00-18:00: 충남중국사무소 방문/서재운 롯데대표와 저녁식사
[上海 1박, 上海虹橋賓館]

10월 21일(수)

9:00-12:00: 상하이시 세계박람회장
14:30-17:30 상해교통대학 제3부문연구중심, 향후 교류협력방향 협의
/MOU 체결
20:30 浦東공항 도착, 21:30 이륙 - 23:10 濟南공항 도착(MU5541)
[濟南 1박, 山東貴和皇冠假日酒店]

10월 22일(목)

07:30-08:30: 산둥성 외사관공실 주임 등과 미팅
09:00-12:00 산둥성 사회과학원(舜耕路56号) 방문, 주요 정책동향과
현황 파악, 교류협력방향 협의,
14:00-18:00 산둥성 농촌체험관광 등 성공정책 사례현장 등 방문
고속철(G1247): 19:30 濟南역 도착, 20:06 출발-22:32 靑島北역 도착
[靑島 1박, 靑島CHINA公社文化艺术酒店, 手机: 15020002158]

10월 23일(금)

9:30: 호텔 출발(靑島市사회과학원 차량 제공)
10:00-12:00: 靑島市사회과학원(南区山东路12号甲, 帝威国际大厦 7
楼), 남색경제구 등 주요 정책동향과 현황 파악, 교류협력방향협
의
13:30-17:30 칭다오 남색경제구(靑島蓝色经济区(即墨) 등 관리위원회
방문 및 현장 답사/참관.
[靑島 2박: 동일호텔]

10월 24일(토) 11:45 靑島공항 도착, 13:45 이륙 - 15:50 인천공항 도
착(MU559)

상해 방문 주요 일정 요약

10월 20일(화)

12:00 김포공항 출발-12:45 상해 홍차오(虹橋)공항 도착

16:00 상하이시 외사판공실, 상하이 충남중국사무소 방문/만찬,
上海 1박)

10월 21일(수)

09:00-12:00: 엑스포 상해 그룹 방문

14:30-17:30 상해교통대학 제3부문연구중심, 향후 교류협력방향
협의/MOU 체결

21:30 浦東공항 출발 - 23:10 濟南공항 도착, 濟南 1박.

1. 엑스포 상해 그룹 방문

연구원 측 방문자 3명과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참석자 및 설명자

- Tnag Shifang, General Manager, Expo Shanghai Group
- Yang Siqu, Strategic Development Dept, Expo Shanghai Group

논의내용

○ 상해 세계 박람회 단지의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문화, 관광, 여가, 오락 기능을 추가하여 후속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음

① 문화 박람지구는 전 상해시 문화발전을 이끌고 인류의 박람문화를 집합

② 둘째,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지구는 세계 박람회 지구 설계시 도시설
계 측면에서 세계의 것들을 모아놓았음. 즉 창의적이고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모아두었다고 함

③ 회의 전시 및 비즈니스 지구는 유명 기업의 본사들을 집결시켜두었음

④ 정무지구- 정치업무, 거주에 적합한 생태 환경 공간으로 조성함. 현재 상
해시 산하의 13개 부서들이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함

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남겨놓은 예비지구를 포함 녹색지대, 생태
여가 휴식 공간이 조성됨. 3개 공원이 완료되어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중점항목 추진현황

B구역

- B구역은 중앙기업 본부를 모으는 곳
- 원래 제철, 조선 등이 있던 공업 용지였는데 이를 오염이 심해서 교외로 옮겨가거나 철거했다고 함
- 기업의 화동본부, 전국본부가 많이 모여있음
-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조성(원칙: 통일설계, 통일시공)

A지구

- 국제기업 본부 집중지구
- 외국계 기업이 많이 입주하였고 현재 진행형으로 조성 중
- 국제화된 중국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금융관련 기업도 비교적 많다고 함
- 회의, 숙박, 전시, 공연, 연출이 모여있는 지구
- 호텔에서 지하통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함
- 문화향유 산업, 세계문화유산을 조성하여 활력충만도시, 매력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목적이 있음
- 중국관외에 인기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관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었음.
- 세계 박람회 단지 개발의 총 면적은 600만 ㎡에 이른다고 함

질의응답

문: 상해엑스포는 상해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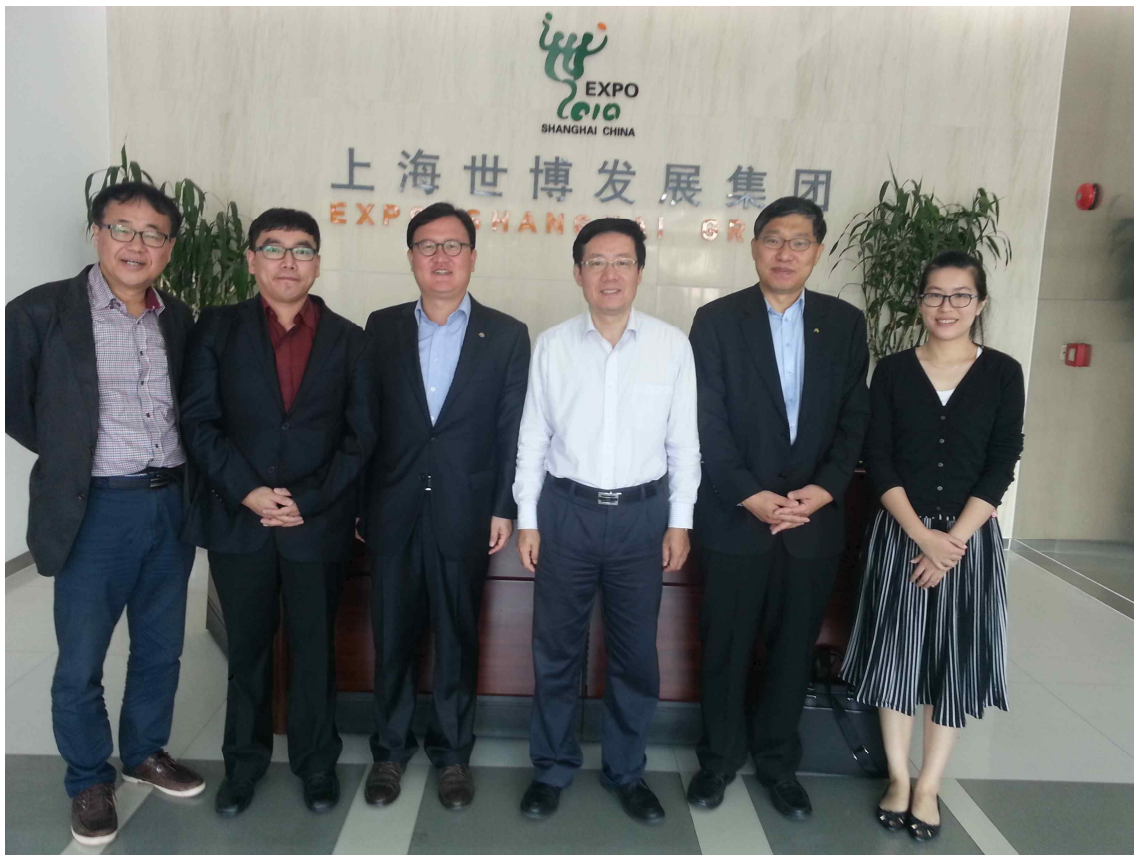
답:

- 도시 중심부 황폐지구를 엑스포를 계기로 리모델링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전 세계 도시계획, 도시개발의 우수한 기법을 흡수하여 실행해놓으니 민중의 의식이 높아졌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후속건설을 진행하면서 매우 발전함

- 상해의 인지도,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아짐.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짐. 예를 들어 이후 진행된 세계 자동차전시회, 전세계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된 측면이 있음
- 장소마케팅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 입주하려고 함

문: 현재 얼마나 근무하고 있고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답: 300여명이 근무하고 수익은 거의 전액 재투자 한다.



2. 충남연구원과 상해교통대학과의 사회적경제 MOU 추진

방문기관개요 [上海交通大学第三部门研究中心]

上海交通大学 제3부문연구중심은 2006년 5월에 성립되었고, 영문명은 Center for the Third Sector,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CTS)이다. 본 중심은 제3부문의 이론과 실증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상

관부문의 정책을 창도(倡導)하고, 비영리조직 관리 전문인재를 배양 육성 하므로써 중국사회의 정치적 현대화를 추동하고 있다. 본 중심은 제3부문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上海交通大学 국제 및 공공사무대학 쉬자량(徐家良)교수가 중심의 집행주임을 담당하고 있다. 본 중심은 설립 이래 ‘제3부문연구’ 포럼을 개최해 왔고, 대학원생 독서회를 조직하고, 제3부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중국제3부문연구》 학술잡지를 출판하고, 국가와 성(省),부(部)급 과제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제3부문이론연구의 심화를 촉진하고 제3부문 실천활동의 질서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연구원 측 방문자 3명과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참석자 및 설명자

- 상해교통대학 문과처 처장
- 상해교통대학 일한 교류처 처장
- 상해교통대학 제3섹터 연구소장 쉬자량
- 국제 및 사무학원 서기
- 상해교통대학 연구교수 유충식

논의내용

○ 상해교통대학에 대한 설명

- 상해교통대학. 교육부. 중국 근대 성선회 선생.. 스스로 강해지려면 먼저 재능을 쌓고 학교를 세워야 한다. 난양 공학 설립
- 개교초기, 실사구시, 1920-30년대 중국의 저명한 교육기관, 동양의 MIT
- 전국적으로... 중점대학
- 제3부문연구중심은 중국 전국 대학연구소 중 국가종합평가 100위 안에 들었음
- 제 3섹터 연구소. 국제적으로 사회조직, 사회건설 방면에 주요한 연구 무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제3섹터 밀접한 연계
- 연구분야 포괄적, 교류협력은 더욱 국제화 될 것이다.

○ 교통대학교 제3부문연구중심과 충남연구원 간 교류협력협약서 서명식 진행.

- 협력과정에서 3가지 부문 정도 희망하는 것이 있음
- 정기적 교류, 1번만의 협력과 방문은 쉽다. 지속적,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

어지면 좋겠음. 적어도 매년 1회씩 상호교환 연구가 되면 좋겠음 예를 들어 상반기 한국, 하반기 중국

- 협력방식의 다양화,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좌담회, 학술강연, 중국사회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교통대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교류협력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을 희망함. 교류의 수준이 증진될 것임
- 집중연구, 중국과 한국 교류협력 연구분야는 매우 많음. 이번에 두 연구기구가 사회적기업을 분야로 선택한 것은 집중하기 위한 것임
- 한국 사회적기업의 고찰, 참관
- 양측의 멋진 협력을 바람. 상해교통대학교 문과처가 적극 도울 것임

○ 상호 인사 및 소개

- 충남연구원은도 종합성 연구를 하고 있음
- 국제공공사무 학원은 2003년에 설립됨
- 본 학원은 공공관리, 정치학, 공공행정계, 공공사회, 비교정치계, 국제관계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제3섹터 연구소가 있고 가장 최근에 한국연구중심이 생겨남
- 한국연구중심과 충남연구원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람
- 본 학원은 국제화의 첨단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
- 약 100여명의 한국유학생들이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부생임. 유충식 선생은 쉬자량 교수의 박사과정생임.
- 국가 제3섹터 연구잡지 발간, 중국의 행정자치부와 교류?
- 한 가지 더 요구: 교류협력사업을 세심하게 가져가면 좋겠음. 협력을 지속해나가서 가치있는 결과를 내었으면 좋겠음

○ 강현수 원장님의 소감 및 소개

- 유서깊은 상해교통대학을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함. 개인적으로 10여년 만에 방문했는데 상해의 발전상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음
- 대학과 연구소 소개 잘 들었습니다.
- 충남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소속 연구기관. 홍보물 맨 뒤에 충청남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한국의 가운데에 있음
- 충청남도에 관련된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음.

- 연구원에 중국연구팀이 있음. 한국연구중심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반가웠음
- 사회적경제연구중심이 있음.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먼저 생긴 연구중심. 충남에 있는 각종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 정책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충남연구원은 농촌 6차산업화 센터 운영. 중국 농림부에서도 찾아온 바가 있음
- 충남의 지역대학과 연결해서 학생들 교류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매년 1회 상호 교류협력,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희망함

○ 조원갑 기획관의 제안

- 충청남도청 공무원 직무연수 해외프로그램에 교통대학과 협력을 희망함. 중국공부와 함께 사회적경제와 제3부문, 그리고 한국연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희망함.
- 상해교통대학과 충청남도가 상호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

-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씀
- 가장 먼저 생긴 정책연구기관. 중간지원조직. 민과 관을 잇는, 민과 민을 잇는 역할.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연구, 정책을 수행. 정책설계, 예를 들면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전, 5개년계획을 만들고 그 정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함. 관의 예산을 잘 전달해주고 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역할.
-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음. 사회혁신까지 연결, 전국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1300개, 충남 60여개
- 전국적으로 연구를 선도함. 이탈리아, 퀘백 등 선진사례에 대한 국제컨퍼런스(상해교통대학과도 연계 가능)
- 한국 사회적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도울 수 있을 것임
- 학생들의 교류는 센터에서 연계해서 지역대학과 연결.

○ 제3부문연구중심 쉬자량 교수의 답변

- 양측 기관 참석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2006년에 설립된 제3부문 연구소, 기금. 재단.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방면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상해 3섹터 연구소 국가 연구사업으로 사회과학 중점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중국연구잡지 '제3부문 중점연구'를 발행.
- 500편의 논문, 20편의 단행본을 발행.
- 국외 기관들과 다양한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 비정부 조직의 법제화에 관심이 있음. 북경대학 법률연구소와 세미나 진행.
-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협력, 오늘 한국 총남연구원과 국제 협력 맺었음
- 작년 영국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방문, 올해 서울, 대전, 부산, SK 그룹과 함께 방문하였음.
-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동남아의 사회적기업보다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
- 한국 총남연구원과 협력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고 범위를 확대시켜 제3부문 전분야로 확장되길 바람.
- 함께 연구 협력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 출판물도 나왔으면 좋겠음.
- 협력 방식에 대해 회의 공동개최, 강의, 견학 등 다양하게 고민
- 한국 총남연구원과 제3부문 연구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방식을 모형화시키는 것까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음.
- 중국, 한국 스타일의 특징이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함.



제남 방문 주요 일정 요약

10월 21일 (수) 산둥성 성도 濟南 으로 이동. 제남 공항 도착
택시 타고 숙소로 이동 숙소서 일박 (숙소: 山東貴和皇冠假日酒店)

10월 22일(목)

1. 07:30-08:30 숙소인 호텔에서 산둥성 외사판공실 관계관 간담회
2. 10:00-13:30 산둥성 사회과학원 방문, 상호 교류 협력 방안 협의
3. 14:00-18:00 산둥성 농촌관광 우수 기업 난소룩향초원 생태 농장
현장 방문

1. 산둥성 외사판공실 관계관 간담회

(오전 7시 반-8시 반)

● 참석자 : 연구원 측 : 방문자 3명과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 산둥성 외사판공실 관계관 등 2명

● 주요 논의내용 :

1. 충청남도청와 산둥성 성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 논의
2. 충청남도 환황해 국제 포럼 및 3농혁신 국제 포럼 설명 및 산둥성 참여 요청
3. 최근 한중 우호 협력 관계 속에서 양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논의



2. 산동성 사회과학원 방문

(오전 10시-1시 30분 (점심식사 포함))

- 참석자 : 연구원 측 : 방문자 3명과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 7명

장슈춘(张述存) 산동성 사회과학원 원장 (山东社科院院长)
야오동팡(姚东方)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山东社科院副院长)
장칭진(张清津) 산동성사회과학원 농업발전연구소 소장(山东社科院农村发展研究所所长)
리광지에(李广杰) 산동성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 소장(山东社科院国际经济研究所所长)
조우칭우(奏庆武) 산동성 성내정세연구원 연구원(山东社科院省情研究院研究员)
관디엔안(管典安) 산동성사회과학원외사판공실 부주임(山东社科院外事办公室副主任)
첸샤오칭(陈晓倩) 산동성 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 박사 과정, 통역 (山东社科院国际经济研究所博士, 翻译)

- 주요 논의내용 :

1. 상호 소개 및 인사

2. 산동성 사회과학원장 산동성 및 산동성 사회과학원 소개

- 산동성과 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배울 점이 있을 것임
- 산동성 행정구역 면적 15.7km², 인구 약 1억. GDP 5.92억 위안. 1인당 GDP 약 9500달러. 도시화 수준은 55%. 농업 생산량 중국 3위 농산물 수출 주력 농업 생산량 중국 3 위 성.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에 비해서 도시와 농촌의 수입차이가 크지 않은 성임.
- 한국과는 농촌경제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정기 교류. 특히 경기연구원과는 매년 상호 방문 학술행사 진행중
- 국제연구소 안에 한국연구중심, 동아시아 연구소가 있음. 이곳에 한국 관련 연구자가 5-6명 있고 다른 조직의 한국 관련 연구자 모두 합치면 10여 명이 있음
- 산동성 사회과학원 소속 해양연구소가 칭다오에 있고 여기서도 한국 관련 된 연구를 하고 있음. 여기서 최근 일대일로 관련 연구 관심. 한국의 해양수산연구원과 교류하고 있음

3.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충청남도 및 충남연구원 소개

- 충남 경제규모가 한국에서 3위, 한국 제조업의 중심지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음
- 충남 전체 수출의 40% 이상 대중국 수출
-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산하 종합연구기관, 최근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 내 중국연구팀을 만들었음

4.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방문 목적 설명

- 첫째, 충남연구원과 산동성 사회과학원과 공식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함. 충청남도와 산동성을 대표하는 연구기관 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아직까지 없어서 시작하려고 함. 충남연구원 입장에서는 상해, 화북성, 흑룡강성 사회과학원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산동성과의 교류가 아직까지 없었음
- 둘째, 교류를 시작한다면 1회성, 행사성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를 희망함. 산동성과 충남이 연구 부문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셋째, 교류 분야로는 일대일로 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는 산동성에서 하고 있는 남색 경제에 관심이 많음. 또한 구체적으로 양 지역간의 항로, 특히 충남 대산항과 산동성의 웨이하이 룡청과의 항로 개설에 관심이 많음. 그 외에도 상호 문화 관광교류, 서해안의 갯벌 등 환경 보전, 해양 수산 분야 등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교류 제안
- 넷째, 협력연구분야를 다양화하되, 가능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제로 집중협력분야를 선정하기를 제안함. 예. 농촌관광 등
- 다섯째, 산동성 사회과학원 원장 이하 관계자 충남연구원 공식 초청

5. 양 기관 상호 교류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진행

- 산동성 사회과학원에서 충남연구원의 제안에 상응해서 양 연구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동의함. 공식적 상호방문교류 수락. 한국 초청 수락. 구체적인 것은 외사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
- 양 연구기관을 넘어 도와 성과의 경제, 문화 등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기로 상호 합의함.
- 농촌관광, 환경보호, 수산업, 산업, 역사 문화 모든 방면을 포함해서 양 연구기관이 의미있는 교류 합작을 하기로 합의
- 산동성과 한국을 잇는 해저터널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론 진행
- 양 기관에서 이후 상호 교류 항목에 대해 서로 서신 교환을 하기로 하고, 다음번 모임은 한국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함.
- 다음번 모임에서는 양 기관 교류 협력 협정 (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함.



방문기관개요 산동 사회과학원〔山东社会科学院〕

산동사회과학원은 중공 산동성위원회와 산동성 인민정부 직속의 종합성 사회과학연구기구이며, 그 전신은 1978년3월 건립한 산동성사회과학연구소이다. 1980년 12월에 산동사회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개원 30여년 이래, 과학연구로 연구원을 일으키고, 인재흥원(人才兴院), 관리가 강한 연구원 등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국내 일류 신행 싱크탱크(智库) 건설발전 목표를 중심에 놓고, 성 위원회와 성정부의 중요한 사상창고로서, 당과 정부의 정책결정과 산동 경제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현재 본원은 문화연구소, 역사연구소, 철학연구소, 국제유학연구 및 교류 중심, 마르크스주의 연구중심, 법학연구소, 사회학연구소, 인구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 재정금융연구소, 성정(省情) 연구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정책연구실 등 15개 연구기구와 ‘동악논총(东岳论丛)’ 편집부 1개 연구보조기구가 있다. 내부 기구로 판공실, 인사처, 과학연구조직처, 기관당위원회, 행정처, 재무처, 이직퇴직간부처 7개 직능처와 실이 있다.

현재 재직직원수는 273인(이중 기업소속인원 6人), 퇴직인원 157인이다. (海洋经济文化研究院 포함). 222명이 사회과학연구, 출판, 번역, 도서자료 등 8개 계열의 각급 전문기술자격을 획득했다.

개원 이래, 원급(院级) 이상 중점과제 1800여개 항을 수행했고, 기타 각 유형별 연구성과가 2만 1000여 항이고, 출판저작 1100여부이다. 이중 국가급과제가 107개 항, 省사회과학원 기획과제가 363개 항, 성(省) 소프트과학(软科学) 과제 94개 항, 성(省) 영도(领导) 제출과제 460여 개 항이다. 473개 항 연구성과가 국가와 省部级 우수성과상을 획득했고, 이중 국가사과기금항목 우수성과상이 1개 항이고, 산동성사회과학 중대성과상이 4개 항, 1등상이 55개 항이다. 340여개 항 연구성과가 성(省) 영도(领导)의 지지를 받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3. 제남 난소록향초원 생태 농장(济南索绿香草园生态农场)방문 (오후 2시 - 5시 반)

● 참석자 : 연구원 측 : 방문자 3명과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 야오동팡(姚东方)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동행
현지 생태 농장 사장 동행하여 설명

● 방문지 특성 :

1. 제남 인근에 위치한 산동성의 대표적인 농촌 관광 성공 사례 기업
2. 결혼 사진 촬영을 소재로 한 농촌 관광에, 숙박 및 체험 시설, 친환경 작물 생산, 겨울 스키장 운영까지 결합한 중국 산동성 농촌 6차 산업화 모델
3. 산동성 농업관광시범 사업장 지위 및, 산동성 과학기술자문협회에 의해 과학기술 자문 선진 사업장 지위 획득

● 방문 내용 :

농장 전체를 답사하며 농장 책임자로부터 생태 농장 운영에 대한 내용 청취



소록 향조원 생태농장 (索绿香草园生态农场)

소개 팸플렛 내용

장주시 진위위안 도시농업원(章丘市金宝园都市农业园)

지난 소록향조원(济南索绿香草园生态农场)은 산둥성 지난시 남부에서 동쪽으로 14킬로미터 정도, 장주시세기대도성징(章丘市世纪大道圣井)구간으로부터 1.2킬로미터 정도, 동구장추로부터 1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교외지구간(交际) 철도에 면해있고, 지난-칭다오 간 고속도로의 IC에 매우 인접해 있으며, 지난 공항과는 채 20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면적은 전체 515무 이고 민속적 분위기를 갖춘 곳으로서, 유기농 야채의 재배, 분양, 채집, 판매 등을 담당하는 향조원의 전원적 풍광은 관광개발 및 결혼식 촬영장소에 적합한 종합적 농업휴양 관광시범농장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곳에서 봄철에 푸른 논과 꽃향기를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피서를 즐길 수 있으며,

가을에는 풍성한 과일을, 겨울에는 스키장의 낭만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지난시 소록향초원은 초기에 생태농장과 관광농장을 서로 결합한 형태로 구상되어 건설되었으며, 장치우는 여전히 지난의 교외 지역에서 관광업 관련 분야의 선도지역이자 모범지역이다. 바로 현대농업지구 발전의 다원화, 규모화, 집약화, 효율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농장지역 안에는 겨울에도 따듯한 대형온실과 청전온실이 12개 있으며, 유기농 채소와 수박 등 각종 26개 품종이 있고, 밭은 면적이 모두 50 무이고, 특수 유기농 채소 위주의 생태형 유기농형, 안전형, 건강형 농장이며, 게다가 4계절 유기농채소가 있고, 그날그날 채소를 수확할 수 있으며, 연균판매량이 55만위안에 달하며, 인근지역 농민 1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 내에 향초 및 화초의 규모가 400무이며, 4계절내내 수수와와 같은 곡물의 재배면적이 가장 크고, 그 밖에도 장미나 천일홍 같은 각종 꽃들이 있으며, 낭만적인 꽃의 바다를 이루고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사람들을 홀리게 한다. 농원 내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쑤세미 회랑(丝瓜长廊)’, ‘조롱박 회랑(葫芦长廊)’, ‘장미화원’ 백합원, 풍차, 요람, 피아노, 사랑배, 연못, 갈대습지, 교회 등이다. 예식촬영, 결혼식 등 자주 행사가 진행되며, 천 개가 넘는 웨딩 회사 및 17곳의 여행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북미팔채배지(北美每棠园)는 장강이남에서 가장 큰 농자 중의 하나로서 240무의 면적에 2000만 위안을 투자했으며, 모두 28만그루의 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꽃을 재배하고, 판매하며, 묘목을 재배하는 일을 한꺼번에 한다. 북미팔채배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원들이 자연교배를 통해서 선택한 우수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품종은 ‘고원의 불(高原之火)’, ‘안개’, 시양양 등이다. 그 과실은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과 비장에 효과가 있으며, 꽃은 감상하기에 매우 좋다. 올해는 백피송 3만그루, 버드나무 3만그루, 일본 낙엽송 1만 그루 등을 추가로 심어서, 농장 내의 숲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한, 강북에서 가장 큰 몽골림 조성지로 60만 무의 면적에 총 1000만 위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몽골의 문화경관을 완벽히 재현할 계획이다. 대•소형 몽고텐트가 50개, 네덜란드형 통나무집이 6채를 건설하며, 세미나,

숙박, 만찬, 오락, 쇼핑 등 각 부문의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가장 큰 몽골텐트는 한꺼번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강지역품격의 양고기와 몽골 풍격의 양 한 마리 구이 등 전통적 요리들을 맛볼 수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향초원 스키장은 산동에서 면적이 가장 큰 지난소록 향초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설상게임을 직접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색으로 삼아서 국가고산스키장의 훈련장소계획의 지도에 따라 아동과 가족 구성원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당신의 체험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온화함과 행복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향초원은 2곳의 확장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의 스키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농장은 먼저 산동성 농업관광시범 사업장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산동성 과학기술자문협회에 의해 과학기술 자문 선진 사업장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지난시 중점농장시범사업장, 지난사 농업선도기업, 장추시(章丘市) 선진 신형농업주체, 장추시(章丘市) 관광업무 선진사업소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고, 국가유기농인증을 받아서 많은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칭다오 방문 주요 일정 요약

10월 22일 (목) 산둥성 성회(省會)도시 지난(濟南)역에서 20시 06분발 고속철도(G1247)편으로 22시32분 칭다오북역(靑島北站) 도착
택시로 칭다오 시내 '靑島CHINA公社文化藝術酒店' 도착, 1박.

10월 23일(금)

1. 10:00-13:30 靑島사회과학원 방문, 상호교류협력방안 협의 및 오찬
2. 13:30-18:00 靑島市도시계획전람관과 칭다오시 교외 현금시인 지모(即墨)시 소재 칭다오 남색경제구(靑島藍色經濟區)와 중국남색 실리콘벨리 해양과학기술신도시(中國藍色硅谷海洋科學技術新城) 계획전시장 참관 및 칭다오 남색 실리콘벨리 핵심구관리위원회 왕쉬에동(王學東) 주임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1. 靑島市사회과학원 방문

(10:00~13:30, 점심식사 포함)

- 참석자 : 연구원 측 3인과 충남도청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 6명

통바오쥔(佟寶軍)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원장 (靑島市社科院院長)
류바오(劉寶)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부원장
콩칭동(孔慶峯)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중한합작연구중심(中韓合作研究中心) 주임
리용쥔(李勇軍)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도시연구소(城市研究所) 부연구원
령징(冷靜)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도시발전연구중심(城市發展研究中心) 부소장 외
1인

- 주요 논의내용 :

1. 상호 인사 및 소개

2.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통바오쥔 원장 칭다오시 및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개황 소개

-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상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도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양국관계 교류협력, 특히 경제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산동성과 칭다오시와의 교류가 급속히 증대되고 활발해 졌다.
- 칭다오시 사회과학원은 기초이론연구, 응용대책, 도시발전에 관한 전문 연구와 칭다오시 전반의 사회과학 학술연구, 우수사례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칭다오는 젊은 도시 중에 하나. 1891년도에 청 정부가 칭다오에 방허기구를 만들면서 설립되었고, 약 124년의 도시 역사가 있음
- 단, 유교의 발상지 중의 하나이고, 도교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으며 오랜 역사 문화 제도가 축적되었음.
- 1920~30년대 기간에는 잡지 출간, 책 출판, 학교 설립 등 칭다오가 당시 중국의 문화 오아시스였음.
- 개혁개방 이후 경제중심, 연해개방도시 등으로 지정되었고, 뚜렷한 지역 특색을 지닌 도시로 발전하였음.
- 현재 칭다오시의 경쟁력은 중국 대도시 중에 10위 안에 들고, GDP 약 1370억달러, 수출입총액 798억달러, 화물물동량 4.7억톤이고, 산동반도 남색경제구의 중심이고, 국가해양전략의 중심이다.
- 2011년에 칭다오가 남색경제지구 선두(龍頭)도시로 지정되었음
- 경제개혁특구로서 과학으로 해양산업 주도. 주변도시를 이끄는 역할
- 중국 블루실리콘벨리(藍色硅谷) 조성을 통해 중점영역의 과학기술 가속화 전략 추진중임.
- 블루실리콘벨리(藍色硅谷) 핵심부가 있는 라오산(嶗山)구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수년간의 건설과 발전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핵심구가 조성되어 있고, 해양과학기술 R&D 센터, 성과 인큐베이터 등 5대 센터가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음.

3. 강현수 총남연구원장 충청남도 및 충남연구원 소개

- 충청남도는 칭다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서해안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서해안 비전, 해양건도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해양국과 환황해프로젝트팀 설치했음.
- 충남연구원은 충남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130여명 연구인력, 7개 연구부서, 6개 연구센터가 있음.
- 작년 10월부터 연구원내에 중국연구팀을 만들어서 대(對)중국 연구와 전

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농업,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중간 교류 협력 확대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도 경제적으로 충청남도와 산동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충남의 수출중 중화권 비중이 70%에 달함.
- 방문목적은 충남연구원과 칭다오 사회과학원과의 공식적인 교류 시작을 제안하고, 실질적, 구체적, 지속가능한 학술 및 연구 교류를 희망함.
- 충남연 중국연구팀에서도 산동성과 칭다오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일대일로, 신상태,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등 중국의 주요 정책과 허베이성과 산동성의 주요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칭다오를 포함한 산동성 주요 항구도시와 충남을 연결하는 해운항로 건설과 문화, 관광 교류 분야에도 관심이 많음.
-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쌍방 간의 교류 추진을 제안함.
 1. 해양수산 분야의 상호협력은 양 지역의 상생에 도움이 될 것임
 2. 경제산업 분야, 한중 FTA 이후 한중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될 것임. 특히 충남 중소기업들의 칭다오진출, 칭다오기업의 충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투자유치 방안 적극 모색.
 3. 문화관광분야, 칭다오가 문화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충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양 지역의 교류협력이 일어날 것이 많을 것임
 4. 농업농촌 분야. 충남은 제조업 부문이 높음. 전체 GDP 중 제조업이 58%임.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현 충남지사께서도 3농혁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양 지역의 교류협력이 필요할 것임. 산동성 사회과학원에 농촌관광분야의 교류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왔음. 학술 회의, 농촌마을 현장방문 등.
 5. 그 외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임. 지역, 도시 아래 기층 마을단위의 교류도 제안이 있었음. 두 연구원이 연결고리가 돼서 충청남도와 칭다오시의 마을단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6. 이후 충남 방문을 제안드림. MOU 등 진전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임.

[칭다오사과원 통바오쥘(佟寶軍) 원장]

- 실속있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음. 양국은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임. 양 연구원 모두 지방정부 싱크탱크이므로 좋은 역할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봄.

- 작년에 대구경북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지난 19일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이 방문하였음. 한중 FTA 상황 내 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미나를 열었음
- 대구경북, 칭다오 두 지역 정기항공노선 회복, 농업 분야 등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음
- 충남의 상황이 칭다오시 발전전략과 매우 공통점이 있고 두지역의 협력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함
- 칭다오시는 중국에서 중요한 연해개방도시이고, 산동성내에서 발전수준이 가장 높은 우수도시임.
- 해양경제, 관광경제, 항만경제가 칭다오시 발전의 중요한 축임.
- 현재 칭다오시 상주인구가 900만명이고, 인구 규모가 커지고 있음
- 농업 비중이 5% 정도로 비중은 적지만 종사하는 인구는 아직까지 많음. 이 많은 농업노동력들이 어떻게 2,3차 산업으로 이동할 것인지 인도하고 농업의 품질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임.
- 충남의 제안에 공감함. 말씀하신대로 5개 영역에서 학술교류를 한다면 경제발전에 매우 큰 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해양수산, 문화분야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음. 차후에 주무부처와 의논을 해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 의논을 해보고 실속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음. 주무부서가 참여하게 되면 학술교류, 세미나 등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임. 그 분들이 실질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임
- 의사결정자, 실질적인 주무부서를 위해서 전략을 제시하고 건의하겠음
- 주무부서와 협의 후 어떠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교류할 것인지 결정할 것임
- 향후 실무 연락협의를 칭다오사과원은 이용균 박사, 충남연은 박인성 박사가 진행.

[강현수 원장 답변]

- 통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매우 실질적임. 실제 담당하는 부서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다음번 좋은 제안을 주시면 바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람
- 사실 이러한 제안은 연구원 뿐 아니라 충청남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 같이 온 조원갑 기획관이 환황해프로젝트팀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조원갑 정책기획관]

- 두 분 원장님의 대화 중에 하고 싶었던 말이 대부분 논의된 것 같음.
- 환황해프로젝트는 황해를 중심으로 황해에 연접한 국가들이 번영해 온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고, 한동안 교류 단절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황해를 중심으로 한중간 교역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FTA를 체결함에 따라 황해를 통한 교역과 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충남도는 중국 동해안에 인접한 환발해권과 환황해권 연해지구와 도시와의 교역 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황해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오늘 논의한 교류협력 방향과 협력사업 추진이 황해 연안지구 국가와 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 충남도는 이러한 공동 연구, 협력사업과 함께 2016년 7월경 ‘환황해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11월 20일에 시범적으로 포럼을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청다오시 사회과학원 원장 등의 참여를 바라고, 포럼주제 등과 관련, 청다오시 사회과학원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림.

[령징(冷靜) 도시발전연구소 부주임/연구원]

- 한국과의 교류는 청다오시가 앞장서고 있음. 청다오시에서도 환황해경제권에 대한 개념을 제출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청다오시 발전전략을 연구할 때도 청다오시가 환황해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어떻게 환황해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가는 청다오시의 발전방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양국, 양지역, 양 연구원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조원갑 정책기획관]

- 환황해 연구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진행중이고 아직 발표가 안되고 있다면, 발표후 자료 부탁.

[강현수 원장]

- 충청남도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삼농포럼’ 등 다양한 한중간 국제교류협력 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고, 충남연구원도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등과 3자간 ‘한중 3농포럼’ 조직 및 학술세미나 개최, ‘충청중국포럼’ 조직 운영 등 지방차원의 중국연구와 한중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향후 보다 다양한 영역과 방식의 교류가 가능할 것임, 예를 들면, 한중 양국이 모두 중시하는 해양경제와 삼농문제, 농촌체험관광 등의 분야에서 작은 주제에서 큰 주제에 걸친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현장 교환방문 등이 가능할 것이고, 이후 충남도와 칭다오시 간의 교류, 기업과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간의 교류협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특히, 칭다오시와 충청남도의 관광교류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칭다오시 사회과학원(青岛市社会科学院) 소개

칭다오시 사회과학원(青岛市社会科学院)은 1979년에 설립되었고, 1994년부터 칭다오시 사회과학계 연합회와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9년에는 칭다오시 도시발전연구중심 간판을 추가했다. 주로 기초이론연구, 응용대책연구와 도시발전전략연구에 종사하고 있고, 칭다오시의 사회과학학술교류와 연구토론과 사회과학지식 선전과 보급, 사회과학우수성과 평가

시상 등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칭다오시 사회과학원(联)은 2001년에 ‘연구원 브랜드화’, ‘명품 개발촉진’, ‘인재영입(人才引进)’ 3항 공정실시를 결정하고, 명품, 항목배양, 비교우위 배양, 브랜드 창출, 인재양성,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도시사회과학원의 개성화, 발전의 신국면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자문 싱크탱크’를 기관업무 브랜드로 결정하고, 각 방면의 업무에서 돌파성 발전을 구현하고 있다.

사회과학원(联)은 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직간부직공이 60명, 이중 고급직급 21인, 박사 6인, 석사 23인, 省市 전문기술 우수인재 5인, 국무원정부특수보조금 혜택수령자 4인, 山东省 10강 이론가 2인, 칭다오시 정협위원 3인이다.

현재 경제연구소, 사회연구소, 도시연구소, 정치법률연구소, 역사연구소, 문화연구소 6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학과건설과 사회발전수요에 근거하여, 노령문제연구중심, 학습과학연구중심, 과학기술경제와 관리연구중심, 중-독 관계연구중심, 중-한 합작연구중심 등 5개 연구중심을 설립했다.

과학연구기구와 보조기구로 판공실, 학회부, 과학보급부(科普部), 과학연구처(科研处), 편집부, 도서정보중심, 정보네트워크 및 자문처 7개 기구가 있다.

3. 칭다오 도시계획전람관(青島城市規劃展覽館)과 칭다오시 교외(即墨市)에 위치한 칭다오 남색경제구(青岛蓝色经济区)와 중국남색 실리콘벨리 해양과학기술신도시(中國藍色硅谷海洋科學技術新城) 계획전시장 참관 및 칭다오 남색 실리콘벨리 핵심구관리위원회 방문(13:30 - 18:00)

● 참석자 : 연구원 측 3인과 조원갑 정책기획관

중국 측 : 류바오(劉寶)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부원장, 리용전(李勇軍) 도시연구소 부연구원, 공칭동 중한합작연구중심 주임 동행

1) 칭다오 도시계획 전람관 현황과 특징

칭다오 도시계획 전람관(青岛规划展览馆) 칭다오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론 스라오런(石老人) 해수욕장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해변 조각공원(青岛海滨雕塑园)과 접하고 있다. 총건축연면적 3만 1680㎡이고, 전시면

적 1만 5000㎡이다. 전시관 입구 로비 대청(大廳)에 들어서면, 정면에 모래로 빚은 부조(浮彫)가 보인다. 웅장한 원형 전시실 내부에 들어서면, 칭다오시(靑島市) 도시 형성 및 발전 역사와 도시계획의 맥락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100년 계획(百年規劃), 전략계획(戰略規劃), 측량지리정보(測繪地理信息), 도시총체계획모형(總體規劃模型), 360도 전경전시, 상세계획, 전문항목별계획(專項規劃) 등의 전시장이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충청남도 보다 넓은 칭다오시 행정구역(육지부 1만 1282㎢과 해역 1만 2000㎢) 전역을 1 : 2750 축척으로 칭다오시 도시공간구조 모형을 재현한 웅장한 모형과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LED 모니터 화면의 영상과 함께 진행되는 해설이었다. 관람객들은 약 1-2 시간의 참관을 통해서 칭다오의 도시계획 역사와 도시총체계획, 도시발전전략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칭다오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갖게 해 주는 이 같은 시설을 충남 도청이나 내포 신도시 전시관 등에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필요 등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2) 칭다오 남색경제구(靑島藍色經濟區) 현장과 관리위원회 방문

중국 중앙정부와 칭다오시정부가 중점추진중인 남색경제구 조성 현황 파악을 위해 칭다오 해양과학및기술국가실험실(靑島海洋科學與技術國家實驗室)과 중국남색실리콘벨리 해양과학기술신도시(中國藍色硅谷海洋科學技術新城) 계획전시장 참관후 사업 총괄관리본부인 칭다오남색실리콘벨리핵심구 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왕쉬에둥(王學東) 주임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진행.

〈참고1〉 칭다오 해양과학및기술국가실험실(靑島海洋科學與技術國家實驗室)은 2013년 12월에 중국 국가과학기술부(MOST)와 산둥성 정부의 지원하에, 국가해양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연구추진 영역은 해양동태과정과 기후변화, 해양생태과정과 자원활용, 해저 석유 및 가스자원, 해양생태환경의 진화와 보호, 심해 및 극지방의 극한환경과 자원, 해양기술 및 장비 등이다.

〈참고 2〉 중국 남색 실리콘벨리(中國藍色硅谷)는 중국 유일의 해양연구를 주요 특색으로 하는 고급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산업집적구역이며, 중국 해양과학기술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양과학자주창신선도구(海洋科學自主創新領航區), 해양경제국제합작선도구, 해륙통합발전시험구, 국가심원해 개발보장기지를 조성하여, 해양강국전략 실시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남색실리콘벨리(藍色硅谷) 총체계획은 2013년부터 2030년 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범위는 육지총면적 351km², 해역면적 225km²이고, 공간구조는 1지구(區) 1지대(帶) 1원(園)으로 구성되어 있다. ‘1지구(區)’는 남색실리콘벨리(藍色硅谷)이고, ‘1지대(帶)’는 핵심구에서 남쪽 방향으로 빈해대도(濱海大道)를 따라서 라오산구(嶗山區) 과학기술도시까지를 가리키고, ‘1원(園)’은 칭다오 고급신기술구 자오저우만(膠州灣) 북부 산업원구를 가리킨다.